

# 출장보고서

## I. 출장 개요

1. 출장건명: DDA 농업협상 참석
2. 출장목적: 전체회의, Room D 및 G10, G33 그룹 회의 참석
3. 출장지역: 스위스 제네바 WTO본부
4. 출장기간: 2008년 6월 10일(화) ~ 6월 15일(일)
5. 출 장 자

|          |      |     |
|----------|------|-----|
| 부서명(기관명) | 직 급  | 성 명 |
| 국제농업연구센터 | 연구위원 | 송주호 |

## 6. 출장일정

| 일 정          | 주요 활동내역                                                       | 비 고 |
|--------------|---------------------------------------------------------------|-----|
| 6. 11<br>(수) | SSM 관련 소규모 그룹회의(대사 참석)                                        |     |
| 6. 12<br>(목) | TRQ 미소진시 처리방안 관련 G10모임 및 수출국과 협의 참석, 민감품목 소비량 관련 Room D 회의 참석 |     |
|              | G33 회의(소규모 회의 결과 설명 및 향후 대책논의) 참석                             |     |
|              | UKG 모임(G33 국가 중 핵심멤버 모임) 참석                                   |     |
| 6. 13<br>(금) | 민감품목 소비량 관련 Room D 회의 참석                                      |     |
|              | G33 회의(소규모 회의 결과 설명 및 향후 대책논의) 참석                             |     |
|              | TRQ 미소진시 처리방안 관련 G10 모임 참석                                    |     |
|              | Green Room 회의(WTO 라미 총장 주재)                                   |     |

## II. 주요 출장 결과

- 1) 6월 11일 : 6.10(화) 진행된 SSM 관련 의장 주재 소그룹회의("Walk in the Woods") 결과 de-briefing 및 6.12(목) 진행 예정인 SP 관련 후속 회의에 대한 논의
  - o 6.10(화)에 개최된 의장 주재 소그룹회의 결과에 대한 de-briefing이 있었던 바, G-33측은 Route A/B를 package로서 같이 활용토록 허용해야 함을 강조하였으나 수출국들은 동의하지 않음

o Falconer 의장은 논의를 마무리하며 Route A 및 B를 다음과 같이 구체화함 :

▷ Route A : 모든 품목에 허용하되, UR bound level을 상한으로 설정하고, cross-check은 도입하지 않음

▷ Route B : 일부 제한적인 품목에 허용하되, UR bound level을 초과할 수 있도록 허용. 아울러 cross-check을 도입하되, cross-check의 적용은 일정 수준(threshold)을 상회하였을 경우로 한정

o 6.12(목)에 개최 예정인 후속 소그룹회의(SP)에 대비한 의견 교환이 있었는데, 1차 회의시 제시된 바 있는 overall average cut 대신 G-33측 기존 입장인 3-tiered 방식을 요구하기로 함

## 2) 6월 12(목): TRQ Underfill—Mechanism(Annex E)관련 G-10의 입장 조율 및 수출국과 협의

o G-10측은 수출국과 사전 협의한 결과, 수출국이 X수치 65% 및 Y threshold 40%를 수용하는 대신 G-10측에게 연 증가분 Y수치 10%p(threshold 40% 이상시), 15%p(40% 이하시)를 요구함에 따라 G-10 입장을 다시 조율함.

- G-10측은 수출국이 제시한 10%p 및 15%p는 너무 높으며,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수준에서 대응기로 함

o G-10측이 수출국과의 협의시 Y 수치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음에 따라 추후에 논의기로 하되, Underfill 남은 이슈를 ▲ 연 증가분 Y%p의 수준, ▲Y%p 의미가 매년인지 연평균인지 ▲ Y%p 기준이 전년인지 기준연도인지 등으로 정하고 다음 회의에서 중점 논의하기로 함

## 3) 6.12(목)15시 :소규모 그룹회의(Walk in the Woods) Falconer 의장 주재로 SP에 대한 의견교환

o zero cut은 각료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사항이라는 이해 아래 여타 SP architecture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는데, maximum cut이 없는

- average cut tier를 설정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됨
- o 캐나다는 2 tiered approach로 간다면, 고려해야 할 것이 ①total SP entitlement, ②average cut, ③minimum cut 등 3개이나, ③은 zero cut과 함께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고 언급하고, 향후 ① 및 ②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여 확정해 볼 것을 제의함
  - o Falconer 의장은 금일 논의가 유용하였음을 평가하고, 잠정적으로 차기 회의를 6.18 (수)에 개최할 것을 제의하는 한편, 동 회의에서는 ① 개별 국가의 Needs에 기초한 논의를 진행하되, ② minimum cut+average cut 방식에 대한 추가 논의를 진행할 것을 제의함
  - o 금일 논의를 통해 SP의 architecture는 우리에게 불리하지 않는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졌는 바, 고무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앞으로 수출국들은 SP entitlement 및 average cut 수치를 통해 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철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SP entitlement 극대화 및 av cut 수치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

#### 4) 6.12, 6.13 : 민감품목 관련 data제출에 대한 review 및 verification 세션

- o 민감품목계산 방식을 위한 Attachment A 및 Appendix 관련, 그동안 제기된 논의 내용과 새로 제출한 품목을 반영한 update된 자료를 토대로 진행
  - 우리측은 우리가 제출한 인삼, 표고버섯에 대한 Common Consumption Allocation Share를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며, 세 번별 공식통계가 없어 추정치사용이 불가피한 탈지분유와 감귤류 세번에 대한 소비량추정방식과 우리측이 모달리티에 포함하기를 원하는 문구를 미국측과 협의하겠다고 함
  - 또한 우리측은 마늘과 관련 신선이외에도 냉동과, 마른 마늘에 대해서도 Core품목으로 분류하기를 재차 제기하고, Minimum Tariff Quota Expansion에 대한 개도국 S&D를 주장한 바 의장국

인 미국측은 오늘의 실무회의보다는 추후 많은 회원국이 참여하는 회의에서 논의할 문제라고 함

- 스위스는 기존의 G-6에서 확정된 민감품목계산방식 paper에 소비량의 최소한 90%를 Core품목에 배분토록 한 규정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 문구를 모달리티에 반영시켜달라고 하였으나 추후에 검토기로 함

○ G-6가 제출한 품목별 Data에 대한 품목별 review 및 verification세션에서는 품목별로 주로 수출국들이 질문을 하고, G-6국가들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질문내용은 주로 national coefficient 산출근거, 국가간 national coefficient의 차이 등이 대부분임.

\* G-6 제출 data에 대한 review 및 verification 세션은 6월 12일 곡류에 이어 13일에는 설탕을 끝냈으며, 다음주에도 계속될 예정이다.

#### 5) 6.13(금) : 그린룸 회의 결과

○ 각료회의의 일정과 관련, Lamy 총장은 현 상황에서 정확한 개최 시점을 말하기 어려우나, 극히 초보적인 구상(highly provisional)임을 전제로 7월초 개최 가능성을 시사함.

- 다음 주중 그린룸 회의를 두차례 개최 (6.18, 20), 협상 진전 상황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협상 일정을 논의 예정임.

○ NAMA 분야와 관련, Stephenson 의장은 지난 6.2 이후 협상그룹 차원의 논의가 중단되어 있으나 이슈별 convergence가 있고 이를 다자화할 필요가 있을 경우, 어떠한 형식이든 회의를 소집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함.

- Lamy 총장은 G12 협의에서 논의 중인 의장 재수정안 para. 7 이외의 여타 이슈(소위 para. 6 등)에 대해 내주 중에는 의장 주도 협의의 재개를 요청

- 한편, 스위스는 GI 및 TRIPS/CBD 이슈를 각료회의에 상정하여 핵심 요소(key parameters)에 대한 각료지침을 받고, 이후 text-based 협상을 개시할 것을 주장하였으나(인도, EC, ACP 지지), Lamy 총장은 회원국 간의 의견의 차가 너무 커, 동 이슈에 대해 현재로서 가능한 것은 의장 보고서뿐이며 그 이상은 (특별한 진전이 없는 한) 본인으로서도 대안이 없다고 언급함.

## 6. 향후 협상 전망

- 6월 16일 주간에도 소규모 그룹회의를 중심으로 협의가 계속될 예정이나, 현재의 진행 속도에 비추어 볼 때 6월 16일 한 주간 협의만으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을지 여부는 아직도 불투명한 것으로 보임.
  - 6월 20일경 예정된 그린룸 회의시에나 보다 분명한 상황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Lamy 총장은 그린룸 회의시 각료회의 개최 시기 문제와 관련, 최근 주요국 각료들과의 전화 협의시 일부 각료들은 각료회의를 빨리 개최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본인으로서로는 각료회의가 실패하거나 중단되지 않기 위해서는 제네바 차원의 준비가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를 말리고 있는 입장이라고 언급함.

## 7. 협상 실무자 간담회 개최

- 일시: 6월 11일(수), 19:00-21:00
- 장소: 제네바 가야 식당(한식당)
- 참석자: 송주호, 이준원(제네바 농무관), 이호열(제네바 외교관), 강민철, 정용호 (농림수산식품부), 최한호(농협 제네바 파견관)
- 주요 내용: 향후 협상 전략, 제네바, 본부, 농경연 등의 협조 방안
- 경비: 216 스위스프랑